

# 영암군, 서울서 '농부의 시장' 개장



영암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앞 광장에서 영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인 '농부의 시장'을 개장해 판촉활동을 펼쳤다. 농부의 시장은 영암군을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교류협력 및 자매결

연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순수한 농부와 도시민과의 만남의 장소인 직거래장터로 이날 영암군은 10여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준비해 영등포구민과 상생과 소통의 장을 열었다.

## 영등포구청 앞 광장서 100여개 품목 판촉활동 한파속 1천3백만원 상당 지역 농특산물 판매

이번 영등포구 직거래장터는 설 명절을 15일정도 앞두고 열린 만큼 영암군에서는 잡곡류와 나물류, 버섯류, 채소류 등 제수용품 위주로 장터를 꾸렸고, 전국 생산량의 약 11%를 차지하는 영암대봉감(꽃감, 감발랭이), 기찬원민들레 진액을 추가로 판매했다.

이날 행사는 영하 10도를 넘는 한파 속에서 영암농협(대표 박도상), 영암정려농조합법인(대표 정봉), 기찬원민들레영농조합법인(대표 최두운)이 함께 참여했고 약 1천3백만원 상당의 영암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했다.

한편, 군에서는 2018 영암 방문의 해와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을 맞아 영암의 문화유적과 영암군을 적극 알리는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군 관계자는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개최되는 농부의 시장은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영암농부가 함께 참여하고 우수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통해 영암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도시민에게 가치를 주게 될 것이며, 특히, 영암군과 영등포구청간의 소통과 상생의 장으로 내실있는 결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강진산 연근 이용 가공품 개발 설 명절 앞두고 주문접수 붐몰

성전면 느린건조(주) 다양한 제품으로 유통업계 선두 우뚝

강진산 연근을 이용한 가공품들이 개발돼 설 명절을 앞두고 주문 접수에 이어지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에서 농업회사법인 느린건조(주)를 운영하고 있는 서형호 대표는 연근을 이용한 연근가루, 연근떡국, 연근슬라이스, 연잎전병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강진군 대표 주력상품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등 각종 박람회장을 순회하면서 연근 상품을 폭넓게 알리도록 노력하며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갔다. 강진군이 추진했던 서울 조계사, 서울시청, 관악구청 등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며 마케팅을 펼쳤다.

서형호 대표는 "강진군에서 행·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 부가치 상승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 항상 감사드린다"며 "연근은 무기질 등 건강에 좋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강진군민 모두 연근 상품을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근은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좋은 뿌리채소로 빈혈예방, 혈액순환, 해독효과, 피로회복, 콜레스테롤 수치저하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자연의 건강식품 원료로 손색이 없다고 전해진다.

연근 상품으로는 연근가루(200g)와 연근떡국(1.2kg)이 각각 1만원, 연잎가루(100g)와 연근슬라이스(500g)는 각각 6천원, 연잎전병(165g/1봉지)은 4천원으로 네이버 스토어팜 채소미(<http://storefarm.naver.com/chesomi>) 또는 농업회사법인 느린건조(061-434-0434)를 통해 구입하면 된다.

강진군은 연근을 '강진군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해 명품 소득작목으로 육성, 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연근 슬라이스, 연근떡국, 저온저장고 등 군비 4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2018년 소득배가 원년의 해를 맞아 다양한 소득원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곡성군, 한파에 수도 동파 신속 처리

민원 67건 해결·긴급복구 6개소...일일 1300톤 누수량 절감

곡성군은 올 겨울 지속되는 최강의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와 가정급수관의 동파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부터 군 긴급처리반이 동파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에 나섰다.

군은 한파에보 발생 후 지난달 24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와 가정급수관 동결 신고가 67건이 발생하였고 동파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는 등 장기간 한파에 따른 대응을 지속하

고 있다. 군 상수도팀 직원 및 상수도 검침원, 상수도 대행업체 15명이 긴급처리반 3개조를 구성하여 이번 동파 민원 해빙 30건, 계량기 교체 37건을 신속하게 처리 하였으며, 아울러 군에서는 긴급 누수탐사 용역을 발주하여 관내 구간 누수탐사 및 관로청음검사 등을 실시하여 관로 6개소를 긴급복구하고 일일 1,300톤의 누수량을 절감하였다.

곡성=김광희 기자

##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수산물식품 수출길 열었다

목포시 출원기관인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센터장 오병준)가 수출길을 열었다.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는 지역특화사업 참여기관인 (주)너오선과 함께 지난달 25일 신인비치호텔에서 '해조류 산업 R&D 활성화 지원사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고 총 70건을 상담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가 지원한 이번 상담회는 중화권 바이어를 초청해 수산물(해조류)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목포 3개 업체 등 전남 도내 수출 유망기업 13개사와 중국, 홍콩, 대만 등의 11개 업체 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홍콩의 'Sin Ki Conceptual World Limited'사는 "다양한 수산물제품을 살펴봤다. 관심이 있는 업체가 있으며 추후 협의를 통해 홍콩에 제품을 수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병준 센터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해남 낙지 명성 되찾는다

군, 낙지위판장 건립 등 경쟁력 강화 추진

서남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해남 낙지의 명성 회복을 위해 해남군이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신규로 낙지지원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 9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3개소에 낙지 산란장을 조성한다. 낙지지원 조성은 산란 전 어미 낙지를 자연 상태로 방사해 낙지 생산량을 늘리고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5~6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어미낙지 1마리당 평균 100개 정도의 산란량을 가지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낙지 생산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산과 위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낙지 위판장이 개설된다. 오는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낙지위판장은 최대 낙지 생산지인 북평면 남창리의 재래시장 인근에 설립된다.

국비와 군비 등 총 10여억원을 투입해 설립되는 낙지위판장은 1층 2층 533㎡ 규모로 낙지와 각종 수산물을 위한 경매할 계획이다. 위판장이 본격 가동되면 15명의 인력창출과 함께 해남산 낙지의 원산지과 가격 등을 믿고 살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올해 김과 전복, 낙지 멸치 등 해남군이 비교우위에 있는 수산



물 에 대한 한 성분 분석 용역도 실시해 해남산 수산물에 대한 과학적 우수성을 자료화할

계획이다. 해남은 세발낙지를 비롯해 꽃낙지, 빨낙지 등이 계절별로 생산되는 서남해 최대의 낙지 공급처였으나 70년대 이후 간척 사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현재는 연승, 통발 맨손어업 등 방법으로 350여명의 어민들이 연간 200여톤을 생산, 5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성진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올해는 어가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낙지 지원의 조성과 유통체계 개선 등으로 해남 낙지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너불어 낙지를 비롯한 지역 수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2022년까지 해남 수산물 생산액 7천여억원을 달성해 나가겠다"는 전망을 밝혔다.

## 영암군 보건소, 한의약 기공체조교실 운영

영암군은 한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몸과 마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한방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실은 한방 기공체조에 관심 있는 희망자 40명을 접수받아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회(월,수) 영암군 보건소 회의실에서 외래강사 지도로 실시된다. 한방 기공체조교실은 기공체조,

단전호흡으로 기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활실천을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질병예방과 자기건강관리 능력배양 등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퇴행성관절염 예방과 치료,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복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최신 이서적백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